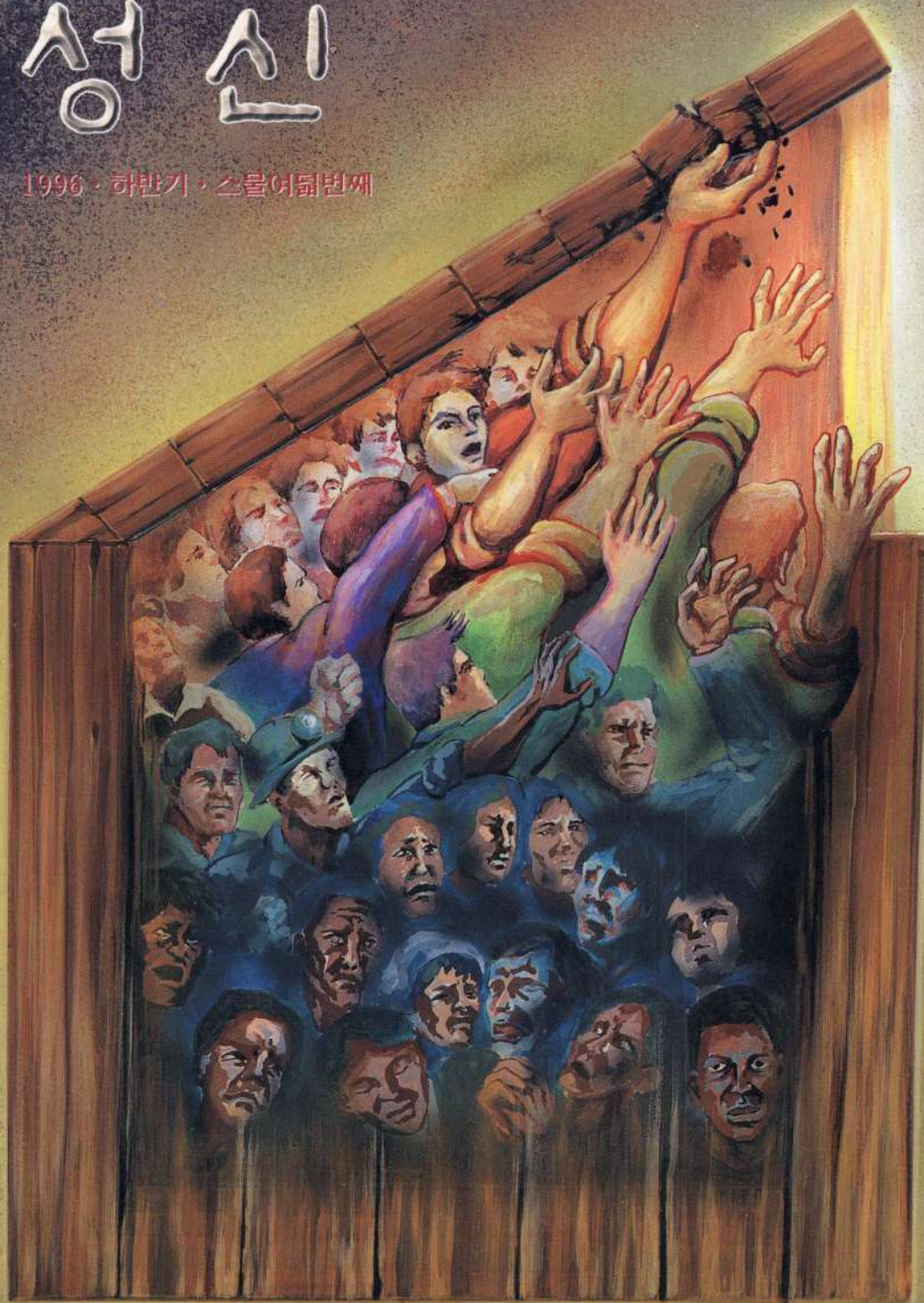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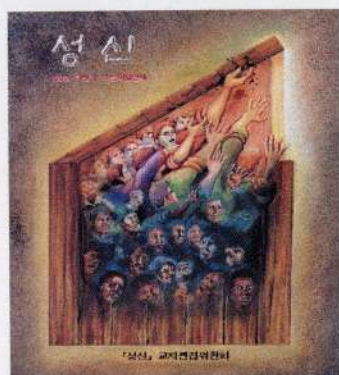


성신

1996 · 하반기 · 스물여덟번째



『성신』 교지편집위원회



표지 〈희망을 기다리며〉

삶이 절망스럽다 하지만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것은
함께 하는 이들이 있기 때문이고,
빛을 바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표지 : 조소과 '93 최영미

1. 권두언
4. 펴내는 글
7. 사진글
14. 학원
16. 한국사회의 새로운 의제 '민주주의'를 말한다. / 이상은
28. 기고글- 조선일보와 한겨레신문의 비교를 통해 본 연대 사태 / 이선경
38. 현(現) 학생 운동에 관한 생각, 우리들의 고민 / 교지편집위원회
49. 그것이 알고싶다
50. 바다의 낭만과 영화사랑이 어우러진 부산국제 영화제 / 이해진
57. 동문탐방
58. 동문탐방- 만화가 이진경 선생님 / 교지편집위원회
63. 성정치
64. 성은 위험한 것이고 죄악의 씨앗이다(?) / 김지혜
76. 남성의 성과 여성의 성- 서로 다른 남녀의 성 / 변리나
85. 문화
86. 대중문화 대중문화의 해방적 잠재성 찾기 / 김인영
92. 독립영화 독립영화와 대학영화가 만났을 때 / 최진아
102. 펑크 반란에서 취향으로, 취향에서 전략으로 / 신현준
110. 독립레이블 음악은 좋은데 '시장'에 내놓기는 그렇(?) 다구요? / 원종우
118. 비판적 수용자 바에 앉아 버드 한병을 마시는 나는 누구인가? / 안영로

성신

1996 · 하반기 스물여덟번째

124. 통신문학 사이버공간과 통신문학 / 황순재
134. 대학문화 함께 느끼는 거리미술전- 등지제 / 교지편집위원회
141. 환경
142. 전지구적 환경위기와 과학기술·체제·인간 / 이주원
156. 목숨을 건 도약! 환경운동 / 김상근
167. 노동
168. 노동법 개정투쟁과 노동운동의 과제 / 김철호
181. 교수의 글
182. 同性同本の 禁婚은 前近代的 封建 惡法이다. / 신채식
187. 만나고 싶었습니다
188. 전통차와 술과 가락이 있는 곳- 고물상 / 교지편집위원회
193. 여행기
194. 모나고 거친 그러나 사랑이 담겨있는 곳- 타지키스탄 / 한영숙
201. 새내기 설문
202. 여성지, 그 골레를 벗어나... / 교지편집위원회
209. 교지에 바란다
210. 경직된 선도가 아닌 친근한 실천을 담아내길... / 박주영
213. 수정문화상
214. <시당선작> 옥망에게 안녕을 고하다. / 김태은
216. 96년 편집실 1년 살이
218. 편집후기



면 우리의 급진적 문화에 가속도를 달아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읽는 이에게 그것을 이해시키든 그렇지 않은 여러 내용들은 담론화되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서로의 얘기를 교류·침투시키는 역할을 교지에게 기대하고 싶다. 오래 전처럼 어려운 이론만을 고집하지 않고 많은 영역의 뿌리를 고민하는 교지에게 보다 과감한 시도를 부탁하고 싶다. 곳곳에서 이루어지는 진보적 고민들을 부각시키고 그 이야기들을 담론으로 세력화하는 일이 선도적이라 말하고 싶다. 예를 들면 성이 이미 그런 길을 걸었다. 성(性)의 역사는 언제나 있어 왔고 그것의 이야기는 은밀히 작은 소리로 나누어야만 했다. 이 이야기가 겉으로 드러나 동성애나 성차별, 그리고 자본에 매관되는 성(性) 등으로 담론화된 시기는 길지 않다. 그러나 그들의 문제점은 과감하게 드러났고 많은 사람들이 공유해 가기 시작했다. 물론 여전히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수두룩히 존재하긴 하지만.

어떤 96학번은 지난 교지의 글 중에서 MBC노조를 탐방한 글을 읽고 '노조'라는 단어를 새롭게 인식하였다고 한다. '노조'에 부여되었던 과격하고 낙후된 그 막연한 색안경이 흐려졌다는 것이다. 물론 이것은 나의 말로 바뀌어 얘기한 것이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조작된 말들에서 그 색이 없어지도록 닦는 것도 놓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언론사의 선도성은 은폐된 것을 걷어내는, 그래서 우리의 일상생활 곳곳의 은밀해야만 할 것처럼 느껴지는 모순의 꺼리를 눈앞에 드러내는 정치담론화의 역할이 어쩌면 그것이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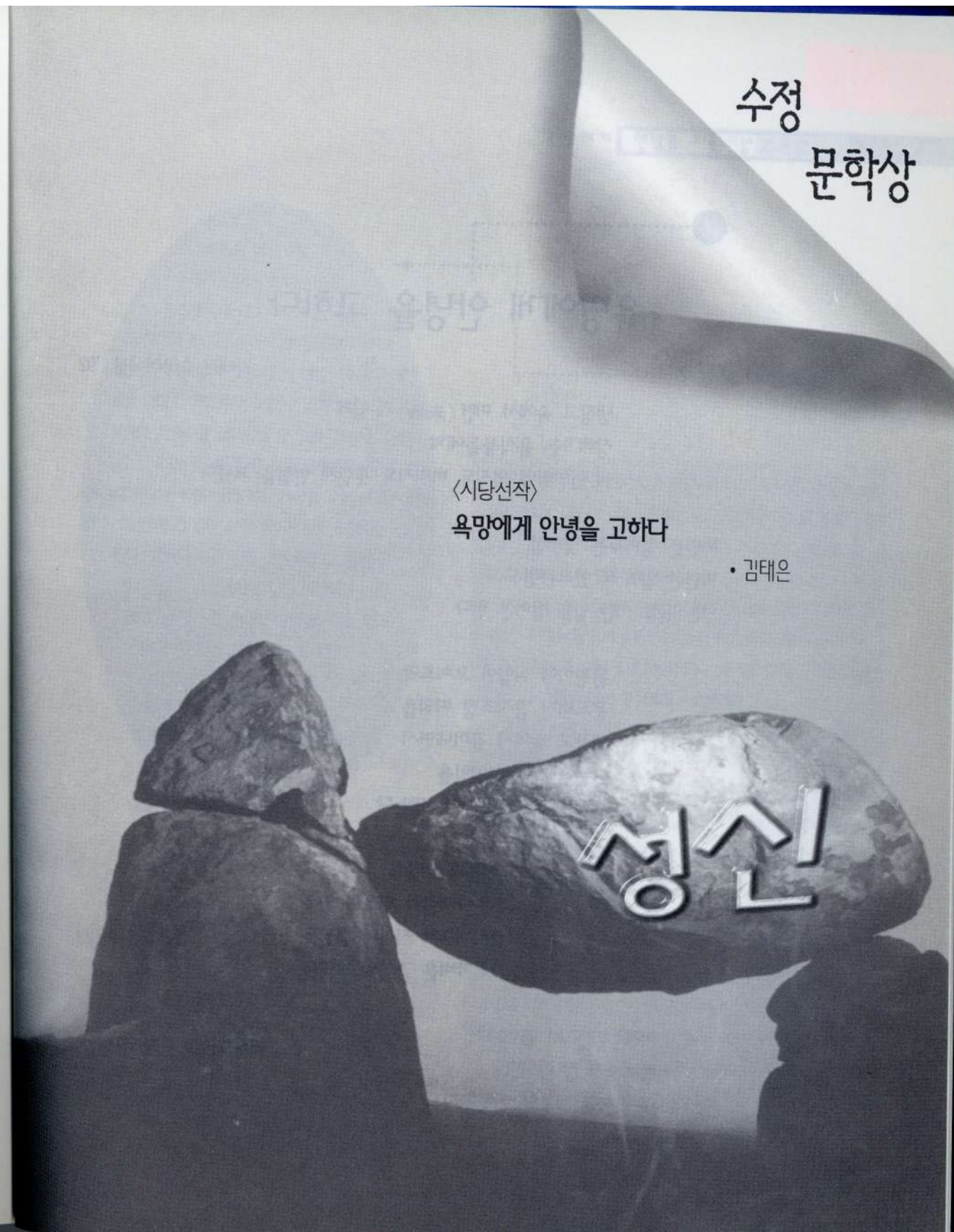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정말 바라는 것은 여러 영역을 어떤 급으로 볼 수 있을까 걱정스러워 그들의 얘기를 교지의 일관된 기초하에 일관된 언어로 지배하지는 않았으면 하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너무도 많은 얘기들에서 어떤 내용을 선택해야 할까에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이 사회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그 말을 기억하고 싶다. 교지는 선도적이어왔다. 그러나 경직된 선도가 아니라 아침 일찍 수습위원이 될 누군가를 위해 소리통을 하는 친근한 실천으로 변해가는 속에서 있으면 좋겠다. **성신**

수정 문학상

〈시당선작〉
욕망에게 안녕을 고하다

• 김태은



육망에게 안녕을 고하다

김태은 / 국어국문 '92

냉장고 속에서 미련(未練)과 함께
상해가는 음식물들에게
나 연연하여 먹지도 버리지도 못한채 한철을 보냈다

미련을 쟁여두는 것처럼
미련한 일이 또 있으랴만도
나는 곧잘 이런 일을 벌이곤 한다

곰팡이에 뒤덮인 오이토막
문드러진 감자조림 따위를
냉장고 속에서 끌어내면서
나는 내속에 고여있을
비릿한 육망의 냄새를 맡는다

명분과 허울로
내 나태함과 뒤섞여 있을
내 싸구려 지식의 껍질들
내 가벼운 감상의 나락들

이제는 빵그리 끌어내어
청소해야 할 일이다
내 마지막 한줌의 허영까지도

수상자 당선소감

문득 어린시절
시골마당에서 보았던 녹슨
펌프가 떠올랐다. 이것이 진정한
답이여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한바가지의
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한바가지의
물로 당장의 목마름을 축일 수 있게 샘솟고 있을
시원한 지하수를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수상이 내 안에서 더 많은 것을 끌어 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가야할 길이 아직은 너무
멀다. 그 전에 그 길에 아직 들어서지도 못했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어떤 길을 선택하든 그 길을 통해
생의 진실에 다가서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생에서 될 수 있으면 많은 것을 얻고
싶다는 부단한 모색과 그에 대한 반추,
그리고 그 후에는 기다림이 있을 뿐
이겠지. 이렇게 나의 글이 읽힐 수
있는 기회를 준 모든 분들께
감사한다.

응모작품의 양이 많지 않은 점은 유감이었으나 질적 향상을 기
대하고 있는 심사자로서 기쁨을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각자가 제
출한 작품의 수가 세 편 이상의 다수여서 각자의 숨은 역량을 기
를 수 있었던 것도 도움이 되었다.

최종 심사에 오른 사람은 국어국문과 4학년의 김태은 양과 이선
주 양, 국민윤리교육과 4학년의 김수정 양, 그리고 불어불문과 1학
년의 박종화 양, 이렇게 네 사람이었다. 네 사람 모두 만만찮은 솜
씨로 맑은 심상을 담아 낸 작품들을 선보였다.

글을 잘 쓰려면 많이 생각하고, 많이 읽고, 많이 써보는 방법이
첩경이라는 것은 상식이다. 네사람 모두 이런 점에서는 어느 정도
의 수준에 이르러 있음이 감지된다. 그러나 서정시의 본질이 비록
개별적 정서에 뿌리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보편성과 일반성
의 획득에 성공할 때 넓은 공감대와 감동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는 더 많은 정진이 요구된다.

우수작으로는 김태은 양의 <육망에게 안녕을 고하다>를 뽑는다.

인간의 육망과 점액질의 미련을 냉창고와 그 속의 음식물이라는
상관물들을 통하여 참신성 있는 비유로 표현한 점이 이 작품에 신
선감을 더하고 있다.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한다면 이런 예민한 마
음의 눈은 더욱 투명해 지리라 생각한다.

비록 선에 들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나머지 세 사람 역시 계속 습
작에 힘을 기울인다면 장족의 발전이 있을 것으로 믿는다.

심사평

허영자/ 본교 국어국문과 교수